

‘위대한 한상 20년, 세계를 담다’ 제20차 세계한상대회 1일 개막

- 1일, 울산에서 전 세계 40개국 국내외 경제인 2천여 명 참석한 가운데 개막
- 한상 네트워크 확장,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장 펼쳐져

[11월 1일(화) 11시 30분부터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]

-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인 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인 ‘제20차 세계한상대회’가 1일 오전 울산전시컨벤션센터(UECO)에서 개막했다.
- 20주년을 맞이한 이번 대회는 ‘위대한 한상 20년, 세계를 담다’라는 슬로건 아래, 전 세계 40개국 2,000여 명이 참석해 한상 네트워크 확장,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장이 펼쳐진다.
-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, 김두겸 울산광역시장, 김점배 대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해외 한상과 국내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. 특히 울산과 깊은 인연이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.
 - 개회식은 최근 이태원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애도하는 해외 한상들의 묵념으로 시작했다.
 - 이어 한상기가 입장하고, 김성곤 이사장의 개회사, 김점배 대회장의 대회사,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환영사 등 순서로 진행되었으며,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와 외교부 장관 축사 대독이 이어졌다.
 - 끝으로 울산 출신 1호 한상인 고(故)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특별 영상이 상영돼 울산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.
- 김성곤 이사장은 “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세계한상대회가 3일간의 기간을 통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도약하는 새로운 20년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한다”라며 개회를 선언했다.

- 이어 김점배 대회장(오만 알카오스 트레이딩 회장)은 대회를 통해 “우리 한상들은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왔고 우리 조국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해 왔다. 무엇보다 세계화라는 경제 질서가 위협받고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이때 한상 네트워크는 경색 국면에 있는 자유무역주의에 숨통을 틔울 산소 공급 장치가 되어줄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
- 개회식 이후에는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주최 환영 오찬이 진행됐다. 오후에는 ▲한상 기업인과 국내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의 장 <한상포럼> ▲글로벌 비즈니스 이슈와 산업 트렌드를 통해 투자 전략 정보를 제공하는 <세미나Ⅰ,Ⅱ>를 비롯해 <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면접>과 <일대일 비즈니스 미팅>이 종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.
-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<기업전시회 개막식>이 진행됐다. 총 13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기업전시회의 오프닝을 기념하기 위해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, 김두겸 울산광역시장, 김점배 대회장,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,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개막테이프를 커팅하고, 전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.
- 한편, 대회 이틀째인 2일 오전에는 <한상비즈니스자문단 발족식>, <스타트업 피칭대회>, 오후에는 <리딩CEO 총회>, <리딩CEO 포럼>, <세미나Ⅲ>, <세계한상대회 20주년 기념행사 및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만찬>, <한상청년 온라인토크콘서트> 등이 진행된다.
 - 특히, 대회 최초로 마련된 <한상비즈니스자문단>은 각 분야별 비즈니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.
- 문의 :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김나영 과장, 02-3415-0142. 끝.